

녹혈, 값 치루고 꼭 마시는 이유

전북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L씨는 한때 녹혈을 공짜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적이 있었다. 농장을 찾게 하려는 의도에서 시작했지만 공짜 녹혈을 복용한 소비자는 '바쁜 사람 오라해서 먹어봤더니 효과 없더라'며 오히려 녹혈 효능에 대해 부정적 결론을 내려버렸다. L씨로서는 맘 먹고 공짜로 제공한 녹혈이 농장 홍보는커녕 생산물에 대한 상품가치만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후 L씨는 철저히 녹혈 200ml 한 잔 당 6만원의 가격을 받고 판매하고 있다. 대신 칩냉쿨, 두충나무 등 산야초와 약재사료를 급여하며 사료부문에 더욱 신경을 기울였다.

농장을 찾는 소비자들도 사슴이 먹는 약재 사료를 보며 녹혈의 효능에 대한 믿음을 한층 갖게 되었고 값을 치루며 녹혈을 복용했다. 물론 효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소비자도 없었다. 현재 L씨의 농장에는 국가 전반적인 경기 불황의 여파로 예전에 비해 찾는 소비자가 다소 줄기는 했지만 해마다 꾸준히 찾아오는 녹혈 손님으로

농장운영에 적잖은 보탬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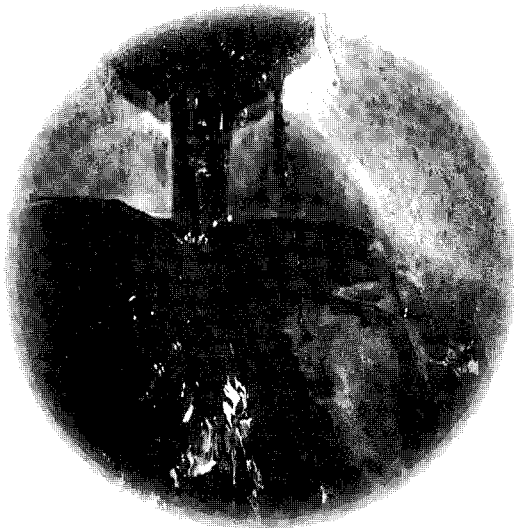
녹혈의 효능에 대해서는 옛 문헌에서부터 현대 임상효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능들도 소비자들의 기대효과와 부합될 때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저렴하게, 혹은 홍보차 무료로 녹혈을 제공하는 것이 당장의 소득에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는 확인된 바 없지만 상품가치의 하락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L씨는 "녹혈을 공짜로 공급하느니 차라리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양질의 사료를 공급, 녹혈의 고급화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단언 한다.

◇ 녹혈의 효능

녹혈은 공짜로 제공할 만큼 효능에 있어 그렇게 만만한 시덥짱은 상품이 아니다.

녹혈에는 칼륨 및 미량 광물질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정력을 증강시키는 강장 효과가 뛰어나 옛부터 중국의 역대 왕족들



은 정력제로서 녹혈을 즐겨 마셨다고 한다. 또한 현대에는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사슴을 선물받아 사육하여 녹혈을 복용함으로써 정력이 좋아졌다는 외신보도가 있기도 했고, 국내 운동 선수들도(마라토너 이봉주, 현대씨름단, 현대야구단 등) 녹혈을 마시며 체력을 증진하기도 한다. 실제로 한방에서는 녹혈을 복용하면 성기능 감퇴로 인한 발기부전증과 극도로 쇠약한 사람이 새힘을 얻을 수 있고 정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녹혈의 효능은 역대 문헌에도 잘 나타나 있다. 녹혈에 대한 효능을 기록한 역대 문헌으로는 「친근병」, 「당문초」, 「식물본초」, 「의학강목」, 「의림찬요」 등을 비롯하여 「동의보감」 등에 수록되어 있으며 효능은 “허를 보하며 요통을 그치게 하고 폐가 약하여 피를 토하는 증상이나 자궁출

혈, 대하 등을 치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효능들이 기록되어 있다.

1) 천금방 : 혈액을 생성시키고 옹증을 치료한다.

2) 당분초 : 미친 개에게 물렸을 경우 환부에 바르고 코피가 계속 나오는 증상에 복용하고 배인곳, 음위증, 허할 때, 요통 등에 복용한다.

3) 본초강목 : 허손에 크게 도움을 주며, 정혈을 도와 두독 및 악독을 해독한다.

4) 일용본초 : 음을 보하고 영기를 도운다. 정력을 증진시키며, 성기능감퇴 등에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

5) 식물본초 : 기를 통하게하여 위급한 사람에게 복용시킨다.

6) 일엽자본초 : 폐결핵, 자궁출혈, 대하 등에 술과 함께 복용하면 효능이 있다.

7) 의림찬요 : 혈을 움직이게 하고, 어혈을 제거하고 타박으로 인한 상처를 치료한다.

현대 한의학적 녹혈의 임상효능으로는 간 기능의 회복과 전신이 허약한 상태를 보하여 주고 혈액순환을 돕고 조절작용을 하며, 신체허약 및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요통을 치료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심장 쇠약으로 인한 정충을 치료하며 신경쇠약 치료에 좋으며, 부인들의 자궁수축 미약으로 생기는 자궁출혈증과 토혈에 효과가 있고, 산전 산후의 빈혈치료,

불면증 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성신경을 자극하여 식성을 흥분하게 하여 성욕을 강하게 한다.

폐결핵으로 오랫동안 치료되지 못하여 폐의 기능이 쇠약한 증상 치료나,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서 오는 모든 부족상태를 도와 생리활성을 원활하게 해주며 경통에 탁월한 효능치료제이고 두통 및 손발이 저린데에도 효험을 발휘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 녹혈 복용방법 및 가공법

녹혈을 복용한 소비자로부터 “아 그거 참 신통하네”라는 감탄사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고급 녹혈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복용 전후의 주의사항 또한 잊지 말고 주시시켜 주어야 한다.

녹혈은 신선한 상태로 실온에서 장기간 보관이 어려우므로 녹용 절각시 시간을 엄수하여 공복에 복용 후 기름진 고기와 속을 냉하게 하는 음식과 자극성이 있는 음식(커피, 맥주 등)을 피하고 과식을 말아야 한다. 복용 후 1-2일은 과도한 운동을 피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특히 설사가 나지 않도록 음식에도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녹혈 복용 후 3시간 정도는 체질에 따라 열이 오르거나, 가슴이 두근거림 등의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체질개선 작용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차가운 물, 술, 우유 등 자극성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2-3시간 정도 안정하고 편히 쉬면 자연스럽게 가라앉으며, 소화가 안될 경우에는 소화제를 복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알려져 있다.

녹혈은 쉽게 응고되고 상온에서 변질되기 쉬운 탓에 녹혈 자체를 보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몇가지 가공법이 이용되고 있다.

■ 녹혈 가공법

① 채취한 녹혈을 도수가 50% 이상되는 술에 담근다. 술 1ℓ에 녹혈 20-30ml를 넣어 보관하였다가 술의 색깔이 황색으로 변하였을 때에 복용한다.

② 녹혈을 받은 후에 유리 혹은 접시와 같은 용기에다 얇게 펴고 일광하에서 건조시키는데, 건조된 후 수집하여 가루를 내어 보관한다. 비가 오는 날이면 50-60℃의 건조기에서 건조한다. 고온에서 건조하면 녹혈이 그릇에 붙게 되어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건조한다. 건조된 녹혈은 혈편을 만들어 4-8g씩 구간차나 한약 달인물에 넣어서 복용하기도 한다.

③ 중국에서는 현재 녹혈을 건조시킨후 캡슐에 넣어 제조한 <용안소>란 약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그 처방은 녹혈 1, 오미자 1, 당귀 0.5의 비율로 되어 있다. 신경쇠약, 건망증, 실명 등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국양**